

## 나주문화재단, 21일부터 복합문화축제 '나나랜드' 개최

시민이 주인공 되는 문화축제로 정체성 강화... 뮤직, 체험, 토크 어우러진 5일간의 문화 축제

나주문화재단이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즐기는 복합문화축제 '나나랜드'를 개최한다. 나주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에 따르면 산업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나빌레라문화센터에서 복합문화축제를 오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축제는 과거 잠사 공장이었던 나빌레라문화센터의 공간적 의미를 되새기고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개방형 문화축제를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유롭게 즐기는 참여형 문화 놀이터"를 슬로건으로 한 '나나랜드'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북토크, 플리마켓, 공예체험,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음악 공연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프로그램들도 준비했다.

축제는 '나나스테이지', '나나스토어', '나나엑티비티', '나나톡' 등 4개 테마로 운영할 예정이다.

'나나스테이지'에서는 대학로 연극 '그날, 덕수궁'과 함께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이 펼쳐지고 '나나스토어'에서는 플리마켓과 공예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나나엑티비티'에서는 분산탈춤, 품바놀이, K-뷰티 메이크업, 더빙 체험, 시 낭송 등 시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나나톡'에서는 신동엽 문학상 수상 작가인 소설가 김기태와 시인 한여진이 참여하는 북토크가 열려 시민들에게 색다른 문화 교류의 장을 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나주문화재단의 대표 프로그램인 '뮤직로드'를 확장한 '뮤직로드 스테이지'를 새롭게 선보인다.

24일에는 가수 수란(SURAN), 25일에는 솔(SOLE)과 따마(THAMA)가 출연해 한층 풍성한 공연 중심의 음악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모든 체험 프로그램은 네이버폼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 내용은 나주문화재단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주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나빌레라문화센터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주 원도심 중심의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찬동 나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나랜드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문화를 함께 만들고 즐기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일상에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



며줄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 영암 인문주간에서 문·사·철과 음악이 만난다

10/27~11/2일 '영암(愛) 인문·인물·선율' 주제로 3색 공연·강연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0/27~11/2일 가야금산조기념관에서 '2025 영암 인문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인문주간은 '영암(愛) 인문·인물·선율'을 주제로, 문학·역사·철학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를 음악 감수성과 결합한 3색 강연과 공연으로 풀어낸다.

인문주간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시문학콘서트>로 문을 연다. 이병률 시인과 노영신 작곡가가 '시의 얼굴, 음악의 풍경'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11/1일 오후 2시에는 두 번째 인문 강연으로 <송일준의 북콘서트>가 열려 영암의 인물·장소 등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전한다. 영암 출신인 작가는 올해 4월 <남도답사 0번지 영암>을 출간했다.

인문주간의 마지막 날인 11/2일에는 인형극과 노래를 결합한 공연 <별아이>가 오후 2시와 3시, 2회 상연된다. 극단영암의 임오성 연출로 선보이는 이번 작품은 별과 우주를 사랑하는 '별이'와 엄마의 이야기를 감동으로 풀어낸다.

같은 날 '책채교한소'가 운영돼 중고 도



서 3권을 가져오면 새 책 1권으로 교환해 준다.

최복용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장은 "인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영암 인문주간에서 영암군민이 공감과 여운을 느껴보길 바란다. 인문의 따뜻한 울림이 영암 전역에 퍼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 광주 대표 인문 축제 '굿모닝 양림' 24일 팡파르

11월 2일까지 가을 대장정 시작... 각종 공연·체험 등 풍성

빛고을 광주를 대표하는 인문 축제인 굿모닝 양림이 10월 24일부터 11월 초까지 10일간 열린다.

15일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제14회 굿모닝 양림이 오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근대문화 유산과 다채로운 역사를 품고 있는 양림동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축제 주제는 '인문으로 양림의 숲을 이루다'이다. 양림동의 역사와 문화, 인물, 근대문화 유산의 가치까지 재조명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축제 기간 이곳에서는 전시 프로그램 8개와 인문학 콘서트 8차례, 공연 무대 10개, 참여·체험 프로그램 16개를 즐길 수 있다.

전시 마당에서는 양림동 화가들의 회화 작품전과 호국·개화·독립을 위한 의림 양림전, 여행 인종 프로그램 사진 전시, 청년작가 15인 작품전, 양림에서 만나는 미술관, 소심당 조아라 및 오방 최흥종 선생의 삶을 다룬 전시회가 각각 열린다.

인문학 콘서트 무대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인공들이 광주 시민들과 소통에 나선다.

이태우 합평 군립미술관장과 황광우 작가, 진모영 영화감독, 허형만 시인, 김원익 그리스신화 연구소장, 박하선 사진가, 오성완 푸른연극마을 대표, 한규무 교수가 전문 분야별 다채로운 소재를 바탕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 예정이다.

공연 마당은 주로 펑귄마을 공예거리 야외광장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유명 가수가 출연하는 정오의 희망곡 공개방송부터 지역 무형문화 유산을 공개하는 공연 무대, 양림의 가을 하늘을 아름다운 선율로 채우는 밴드·뮤지션의 연주 무대를 만끽할 수 있다.

또 남구합창단을 비롯해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과 양림극단, 서서평 합창단이 선사하는 작은 음악회와 사직 통기타 거리가수들의 추억 노래 공연, 호남신학대 학생과 양림교회 교인들이 선보이는 양림



버스킹 무대도 연이어 펼쳐진다.

이밖에 참여·체험 마당에서는 양림 그림 여행과 펑귄 만들기, 화가와 함께 그리는 나만의 캐리커처, 근대의상 체험, 스탬프 투어, 피아노 연주, 감성 그네 타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가을 낭만이 가득한 양림동에서 마음의 여유와 행복한 시간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광양중마도서관, 가을학기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도서관 꼬마 과학 탐험대 등 연령별 3개 강좌 운영

광양중마도서관은 가을학기를 맞아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6주 동안 진행되는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유아(5~7세)와 초등학교생(1~2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을의 자연을 느끼고 배움의 즐거움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운영 강좌는 ▲유아 5~6세 대상 '순 끝으로 만나는 가을' ▲유아 6~7세 대상 '책 읽는 작은 섹스들' ▲초등 1~2학년 대상 '도서관 꼬마 과학 탐험대' 3개다.

각 강좌는 전문 강사가 맡아, 오감을 활용해 자연을 체험하고, 책과 요리를 접목해 창의력을 키우며, 과학적 탐구로 호기심을 넓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강 신청은 9월 29일 오전 10시부터 10월 6일까지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반드시 수강생 이름(아이디)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용민 중마도서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계절의 특성과 과학적 원리를 실험과 체험을 통해 직



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어린이 프로그램 전문 강사의 지도로 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학습과 놀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http://lib.gwangyang.go.kr>)을 확인하거나 중마도서관(☎061-797-3884)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신선호 기자

### 보타나인 농어촌

지역 내 농어촌 주민 지원

## 농

지가 있다면

##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 어

금이 있습니다

## 기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 (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http://www.fbo.or.kr)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농지연금